

소부장 1.0/2.0 정책 및 202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정봉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단(OSP) 소재부품산업 MD그룹 세라믹 PD실

2019년 7월, 갑작스런 일본 정부의 반도체 공정용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쓰나미급의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루아침에 반도체 공장이 멈춰버리는 사태를 예견하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그러나 일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스케일로서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과제 기획의 수퍼 울트라 패스트트랙으로, 추경 예산 편성으로, 1년 반 넘게 추진 중이었던 5조원대 규모의 소재예타를 면제하면서 동시에 전략적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숨 가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단속을 서둘렀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2020년 7월, 정부는 다시 한번 고삐를 당겼다. 얼떨결에 당한 기억을 반추하며 올해 소부장 2.0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번의 정책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소부장 2.0 정책에 기반하여 정부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내년도 과제 관리 제도와 기획의 개선은 물론 각종 프로세스를 크게 손질하고 있다. 202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 일정을 소화해내느라 소재부품PD 그룹은 물론 모든 관련 PD그룹과 Keit 정책/기획팀들은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이 분주하다. 패키지형 신규 예산은 약 2,600억원 규모다. 250여개에 달하는 세부과제들은 주력산업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으로 분류되어 기획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사업공고가 목표다. 이러한 소부장 정책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현황을 들여다보며 우리나라 산업의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30여년 전, 일본이 우리에게 던져준 "가마우지 경제"라는 멍에를 하루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기 위함이다. '제철보국'의 가치를 내건 그 옛날 포항제철이 있었듯, 이젠 '소재부품 기술보국'을 새기며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도를 떨쳐버릴 그날을 기다린다. 세라믹은 더욱 더 절실하다.